[‘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백년의 기록<35>]곤충 · 조류 등 1세기前 세계무대에 보고

제2부 동물연구 제주시대 열리다<1>

입력 : 2005. 01.03. 00:00:00

프롤로그

식물 뿐만이 아니다. 곤충과 조류 등 동물상과 제주의 독특한 지질·화산체가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1백여년전이다. 2005년은 제주의 동물연구가 서막이 열린 지 1백주년이 된다.

#두 이방인의 행적

전 세계에 1천2백여마리만 남아 멸종위기에 있는 ‘저어새’ 20여마리가 매년 겨울철이면 성산포 일출봉 인근 고성리와 북제주군 하도, 종달리에 찾아와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새가 좋은 사람들’은 2003년에 이어 2004년 12월에도 제주의 진객인 ‘저어새’의 월동지 보전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특별히 최근 열린 워크숍은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 주관해 조류자원에 대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워크숍은 우리나라는 물론 대만과 홍콩의 전문가들도 참가해 제주 저어새 월동지에 대한 조사와 국제적인 저어새 월동지 보전사례, 월동지 탐방기회를 가졌다. 국내외 조류 전문가들은 저어새가 월동하는 제주연안 습지와 철새도래지의 입지적생태적 가치, 주변 경관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제주의 조류 연구사는 1백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9년 2월 17일 미국인 앤더슨(Anderson)은 제주도에서 채집한 동고비 수컷 1마리를 보고 Bedford의 이름을 따서 ‘Sitta berfordi’이라는 신종으로 발표한다. Bedford(1858-?)는 영국의 저명한 귀족이며 영국동물학회 임원이었다.

앤더슨이 동고비를 최초 채집한 것은 1905년 9월 11일이었다. 이것은 제주도 조류에 대한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보고이다. 이 표본은 영국자연사박물관에 1907년 12월 17일 등록, 소장되고 있다. ‘제주동고비’는 종 자체에 학명이 부여되고 근대적 의미의 제주조류연구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당시 런던 동물학회와 대영박물관은 1904년부터 1911년까지 동부아시아(주로 일본, 한국, 중국)에서 소형 포유류의 채집을 목적으로 동물탐험을 기획하게 되는데, 포유류학자인 토마스

한라일보

(Oldfield Thomas)가 탐험을 설계한다.

그러나 실제로 탐험에 종사한 사람은 미국인 앤더슨 두 형제와 일본인 이치카와 상키(市河三喜)이다. 동부아시아 탐험 도중 앤더슨과 이치카와는 1905년 일본 나가사키를 출발하여 부산과 목포를 지나 제주항에 들어오게 된다.

이들은 제주에서 1905년 8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46일간 천막생활을 하면서 엔더슨은 포유류와 조류를 채집하였고 이치카와는 엔더슨을 도우면서 주로 곤충을 채집하였다.

이들은 족제비, 등줄쥐, 조류 약간, 곤충류 86종 밖에 채집하지 못했는데, 이는 채집시기에 비날씨가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후 앤더슨은 동아시아에서 채집한 포유류에 대해 15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석주명(1968)은 '제주도 수필'에서 이들의 채집활동을 최초 제주도의 학술조사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섬이 되었다. 마지막 빙하기에 있어 제주의 해안선은 현재보다 낮았다. 섬으로 고립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중국 및 한반도 대륙과 이어져 있었다.

#잠식되는 생태곳간

이 시기에 장거리 비행에 어려움이 많은 조류를 비롯하여 육상 이동이 불가피한 포유류와 양서파충류가 한반도 또는 중국으로부터 이주해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 빙하기가 쇠퇴하고 지구의 온난한 기후가 유지되면서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고립되었다.

1백년전과 비교해 볼 때, 제주의 동물 생태환경은 어떠한가. 섬 곳곳이 갈기갈기 찢기고 채이면서 생채기를 하고 있다.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속에서 억세게 생명을 유지해온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이 아닐 수 없다.

청정 제주, 친환경적 제주, 식물의 보고 제주, 그 곳에서 숨을 쉬는 동물들은 그들의 공간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제 야생동물의 생태곳간을 더 이상 파괴하거나 잠식해서는 안된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잠시 도둑질했던 야생동물의 터전을 돌려줄 때가 되었다. 또 1백년이 지나면 어떤 동물이 제주땅에서 사라져 있을까. 제주환경의 바로미터는 우리 곁에 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한라일보

세계 곤충학자들 제주로

올해10월 아·태평양 곤충학회

국내 처음 개최…연구 활성화

지난 2002년 아시아·태평양곤충학회(Asia-Pacific Congress of Entomoly)는 2005년 학술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학회는 20여개국, 5백여명의 전문가들을 회원을 두고 있으며 2년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학술대회를 연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학술대회가 열린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한국유치가 확정되자 2라운드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제주도와 부산시가 유치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 유치경쟁은 1년 이상 진행됐으며 결국 지난해 4월 제주도 유치가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제주유치가 확정되기까지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동물과장 정세호박사 등 도내 곤충학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는 10월 18일부터 5일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곤충학술대회는 곤충의 분류, 신종 발표, 자원의 활용방안 등 당면한 곤충학계의 현안들이 논의된다.

올해 제주에서 국제적인 곤충학회가 열리게 된 것은 제주도로서는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제주도 곤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기록이 보고된 때가 1905년이며, 올해가 바로 제주곤충 1백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주생태계 1백년의 기록은 곤충연구와 더불어 이렇게 시작됐다. 1905년 8월 9일부터 시작된 두 이방인의 제주기록은 환경과 생태자원이 미래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요즘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행적이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 곤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1847년 타튬(Taum, T.)에 의해 제주도에서 채집한 '제주홍단딱정벌레'를 근대식 학명에 의해 처음 기록, 신종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곤충사의 시작이며, 그 진원지가 바로 제주도다.

세계적 곤충학자인 '나비박사' 석주명은 현재 서귀포 토평동 소재 제주대학교 부속 아열대연구소에 머물며 나비류를 채집하고 기록하는 등 국내 곤충연구의 터를 잡았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이 곳에 석주명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 흉상을 세웠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제주가 국내 곤충연구가 시작된 곳이었으며 산실이었다는 점을 입

한라일보

증하는 것이다.

곤충의 종(種)다양성은 제주가 보고라고 할만큼 독보적이다. 제주도는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약 3천3백여종이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7종의 제주도 고유종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곤충의 24%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헌상 전해지는 기록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종수가 무려 4천5백여종에 이른다고 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제주곤충을 자원화하고 산업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곤충을 쓸모없는 벌레나 해충이 아닌 유용가능한 미래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곤충연구가 시작된 지 1백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나왔다. 이 또한 지금이 시작일 뿐이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라일보